

□ 中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3월 4일 개막 10일 폐막

오늘(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언론브리핑이 열렸다. 귀웨이민(郭衛民) 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은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가 4일 오후 3시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해 10일 오후 폐막한다면서 ‘14차 5개년’ 계획 제정과 실시 초점을 맞춰 깊이 있는 의정 협의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기간 중 개막식과 폐막식, 2차례의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중 한 차례는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6차례의 소규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외국 주중 사절을 초청한다.

대회 주요 의정으로는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와 제안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듣고 심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 참관, 정부 업무 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를 듣고 토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제정과 2035년 장기 비전 목표 요강 초안 토론,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정치 결의 등의 결의와 보고를 심의·통과한다.

□ [양회 브리핑] 정협 대변인, 중국 백신 안전 의혹에 답해

3일 오후,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언론 브리핑이 열려 귀웨이민(郭衛民)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번 대회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기자가 “전 세계 백신 경쟁에서 중국의 백신이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 백신 실험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또 중국이 우선적으로 기타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며, ‘백신외교’로 더 큰 영향력을 얻고자 국내 백신 접종 보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봤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를 질문했다.

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수단이자 국제 방역 협력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글로벌 공공상품으로 보고 세계보건기구(WHO) 코백스에 가입했다며, 2월 말까지 중국은 69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에 백신을 지원하고, 28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는 등 관련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국제사회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귀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각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이바지하길 원한다” 라고 말했다.

□ [양회 브리핑] 중국 코로나19 백신 5200만 명분 이미 접종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자 질문에 귀웨이민(郭衛民)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 대변인은 “2월 말까지 중국은 누계 백신 5200여 만 명분을 접종했고, 시종일관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을 최우선에 두었다. 백신 기업은 연구개발과 모든 단계 실험에서 줄곧 관련 기술 표준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며, 연구 개발 및 실험 단계부터 긴급사용, 조건부 출시까지 매번 중요한 단계마다 즉각적으로 공신력 있는 소식을 발표했다. 또한 다수 국가에서 중국 백신을 이미 승인했고, 일부 국가 지도자들의 경우는 직접 중국 백신을 접종하면서 중국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설명했다” 고 밝혔다.(人民网, 2021.3.4.)